

톤 온 톤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자[†] · 임 지 영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The Effect of Tone-on-Tone Coloration on the Visual Image of Traditional Korean Dress

Kyung-Ja Kang[†] and Ji-Young L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2005. 7. 4. 접수: 2005. 9. 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one-on-tone coloration on the visual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dress. The materials in the experiment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made up of various stimuli and the response scales for each stimulus. The stimuli were 48 color pictures with various combination of colors, in which the tones of jackets and skirts were manipulated by computer drawing. 24 bi-polar adjectives, each of which was graded into seven in its degree, were used to evaluate each image. The subjects were 576 female students in Jinju City. This experiment was based on the 3×4 factorial designs: color (red, yellow and green), jacket tone (vivid, light, dull and dark) and skirt tone (vivid, light, dull and dark).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mpression factor of the stimuli consisted of the 5 different dimensions - youthfulness and activity, attractiveness, gracefulness, visibility, and tenderness. The colors and the tone of jackets and skirts used in this experiment influenced 5 impression dimension by interaction of two variables or working independently. Yellow and green with vivid or light tone had an effect on the formation of youth and activity image, and dark-light combination had an effect on the formation of attractiveness image. In case of green color, light tone of a jacket and vivid or dull tone of a skirt affected gracefulness, while yellow has no impact on visibility image regardless of skirt tone. Red and yellow with vivid or light tone were a factor to decide tenderness.

Key words: visual image(이미지), tone-on-tone coloration(톤 온 톤 배색), Traditional Korean dress(한복).

I. 서 론

대인 지각시 의복은 상대방에 대해 제일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 중의 하나이며 상대방의 인상 형성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게 된다. 대인 지각의 단서로는

의복의 다양한 요소인 색상, 재질, 부늬, 디자인, 적합성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인지각의 상황에서 타인이 갖는 특성들에 관한 정보가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의복에서 인지하는 내용과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서를 집합적으로

[†] 교신저자 E-mail : kjkang@gsnu.ac.kr

사용하여 지각할 수도 있다¹⁾.

의복단서가 되는 색은 단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복수의 색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 복수의 색이 배색될 때 일반적으로 지각자는 각각의 색을 분리시켜 지각하지 않고 조직화된 전체로 지각하게 되는 행동 패턴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의복 디자인에서 색채는 형태나 패턴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⁴⁾.

특히 한복은 디자인보다 소재나 색상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복식에서 색은 디자인요소 중 일부이지만 가장 표현적인 요소이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색은 명도, 채도, 색상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므로 인상 형성에 미치는 색의 영향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한복 배색에 관한 국내 연구들⁵⁻⁸⁾은 대부분 색상이나 색상 조화, 구조를 중심으로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강경자^{9,10)}는 한복의 색상과 톤에 따라 치마색과 저고리색이 어느 정도 조화되는지 두 색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화감 지각을 연구한 결과 개인이나 문화간에 차이가 큰 배색과 작은 배색이 있음을 밝혔고 또한 톤인 톤 배색보다 톤 온 톤 배색의 조화 영역이 넓다고 하여 배색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배색방법이 조화감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면 배색방법이 이미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색상의 영향을 다각도로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런 관점에서 명도나 채도에 변화를 준 치

마·저고리의 톤 차이에 따른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전통 한복에서 많이 사용되는 빨강 치마와 노랑, 초록 저고리의 색상을 기준으로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으로 정하고 이들 색을 치마 저고리에 각각 비비드, 라이트,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하였다. 치마·저고리의 배색이 배색방법의 한 유형인 톤 온 톤 배색 즉 저고리와 치마의 색상은 동일하고 상·하톤 차이가 있는 배색이 되도록 조합될 경우 이들 톤 조합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한복의 색상과 치마·저고리의 톤 조합에 의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의미 미분 척도를 구성하여 그 요인구조를 밝히고 색상과 치마, 저고리의 톤을 서로 다르게 조합시켜 봄으로써 이들 중 어떤 단서들이 상호작용하여 착용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착용자의 인식차원

인상 형성은 자극대상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있게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1) Susan B. Kiser, *복식사회심리학*, 김순심 외 3인 역 (서울: 경춘사, 1995), p. 222.

2) 壁谷久代, 加藤雪枝, 楢山藤子, “被服に對する色彩と圖形の知覺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會志* 21권 8호 (1980), pp. 35-42.

3) 上野清一郎, “衣服の嗜好に關する統計的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會志* 21권 7호 (1980), pp. 42-48.

4) 강경자,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1보)-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4호 (2001), pp. 731-742.

5) 강혜원, 고예란,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권 2호 (1991), pp. 211-227.

6) 이현화, 박찬부,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1)-의복단서들 중심으로-,” *복식* 32호 (1997), pp. 313-336.

7) 이혜숙, 김세숙,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지각(제1보)-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5호 (1998), pp. 597-606.

8) 이혜숙, 김세숙,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지각(제2보)-여자 한복의 상·하 색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권 8호 (1998), pp. 1052-1059.

9) 강경자(a), *Op. cit.*

10) 강경자,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2보)-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 (2002), pp. 431-453.

Ash(1946)에 의해 시작된 형태주의식 접근에서는 인상형성사 개인은 자기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 형태로 지각하여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었다¹¹⁾. 이때 상대방이 지닌 특질 중 중심 특질이 있고 이에 따라 주변 특질의 의미가 결정되어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대인지각의 상황에서 상대방이 갖는 특성들에 관한 정보는 색상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사용되지만 상호작용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타인이 가지는 특성 중 어느 것이 인상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느냐 하는 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¹²⁾.

Sears 등은 의복에 의해 전달되는 인상 차원을 대체로 평가(좋다나쁘다), 능력(강하다-약하다), 활동(적극적-소극적)의 세가지 기본차원으로 구분하였다¹³⁾.

한복을 중심으로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강혜원, 이주현(1990)은 4개의 의복유형에서 상하의에 따른 인상차원을 평가, 능력, 품위, 동조성, 친화, 화려함 등의 6개 요인으로 설명하고 이중 평가차원은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고 하였다¹⁴⁾.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여자 한복의 인상 형성을 연구한 강혜원, 고애란(1991)은 친동성, 장식성 변수를 사용한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이 평가, 품위성, 현대성, 실용성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¹⁵⁾. 이혜숙, 김재숙(1998)은 여자의 치마, 저고리를 중심으로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를 연구한 결과 한복 착용자의 어미지는 사회성, 평가성, 현시성, 매력성의 차원으로 도

출되었고 사회성, 평가성 차원은 의복유형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고 평가성, 현시성, 매력성 차원은 색변인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⁶⁾. 이현화, 박찬부(1997)는 한복의 저고리, 치마, 깃, 고름의 구조에 따른 색상 조화로 이들 단서들을 통합하여 도출된 인상 차원은 선호, 평가, 개성·주의집중성, 젊음, 친화요인으로 나타났다¹⁷⁾. 이명희(1999)는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복 및 양장 착용과 관찰자 연령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인상 차원은 선호, 품위, 능력, 활동성, 여성성, 현대성의 6개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¹⁸⁾.

김윤경, 강경자(2003)는 의복스타일, 의복색, 돈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이들 단서에 의한 인상 차원은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현시성, 온유성의 5가지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 차원중 매력성, 품위성 요인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¹⁹⁾.

이상에서 연구자에 따라 단서로 사용한 색상의 차이는 있으나 색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나 인상은 다소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색상이나 톤이 다른 두 색이 조합되었을 때 지각되는 이미지는 단일 톤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배색과 인상 형성

인상은 자각과정에서 생리적, 심리적으로 작용하여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인자(1974)는 의복에서 첫인상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색채라고 하였다²⁰⁾. Delong(1987)은 색의

11) D. O. Sears, J. L. Freedman and L. A. Pepleau, *Social Psychology*, 5th ed. (NewYork; Praentice-Hall, 1985).

12) E. E. Jones and J. W. Tribaut, The Interaction goals as bases of inference in interpersonal Perception, InR, Tagiuri & L. Petrullo(Eds.), *Person percep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pp. 151-178.

13) D. O. Sears, J. L. Freedman and L. A. Peplau, *Op. cit.*, p. 50.

14) 강혜원, 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1)-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권 1호 (1990), pp. 31-43.

15) 강혜원, 고애란, "여자한복의 인상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권 2호 (1991), pp. 211-227.

16) 이혜숙, 김재숙(a), *Op. cit.*

17) 이현화, 박찬부, *Op. cit.*

18) 이명희, "노년여성의 한복 및 양장 착용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 43권 (1999), pp. 187-202.

19) 김윤경, 강경자, "의복스타일과 색상·돈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3,4호 (2003), pp. 395-406.

20) 이인자, "성격과 의복 디자인 선호간의 상관연구," *태완가정학회지* 14권 2호 (1974), pp. 785-799.

명도, 채도, 색상의 3가지 차원은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분리하기도 하며 의복착용자의 표면효과(surface effect)로 작용한다고 하였다²¹⁾. 배색은 2색이상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두 색 이상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배색은 색상조화로서 설명하되 동일한 색도 2색 배색의 대상이 된다²²⁾.

Kobayashi(1981)는 색의 삼속성을 단순화하여 색과 톤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한 색이미지는 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와 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였다²³⁾. 톤에 따른 배색 유형은 톤인 톤 배색, 톤 온 톤 배색, 콘트라스트 배색 등으로 나누고 대체로 톤은 동일하지만 상하 색상에 차이를 둔 톤인 톤 배색, 색상은 동일하지만 상하톤에 차이를 둔 톤 온 톤 배색, 색이나 톤이 현저하게 대비되는 콘트라스트 배색 등으로 구분된다.

강경자(2002)는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 한국 여대생은 상하톤 차이가 나는 배색을, 미국 여대생은 상하 같은 톤의 배색을 보다 조화된다고 평가하여 조화에 대한 판단기준이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 여대생은 빨강, 노랑, 초록 등 색상에 관계 없이 상하 같은 톤의 색상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빨강 톤 온 톤 배색에서는 비비드 저고리에 라이트나 다크 치마, 라이트 저고리에 비비드나 덜, 다크의 치마, 덜 저고리에 라이트 치마의 배색이 조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노랑의 톤 온 톤 배색에서는 비비드 저고리와 다크 치마, 라이트 저고리에 덜, 다크치마, 덜 저고리에 다크 치마, 다크 저고리와 덜 치마의 배색을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색상과 톤이 분리되어 지각되는 것이 아니고 조적화된 전체로 지각되어 조화 정도를 느끼게 된다고 보고 색상만으로 또는 색상의 톤만으로 배색 조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²⁴⁾.

Winakor & Navarro(1987)는 의복색의 명도(어두운, 중간, 밝은)와 의복스타일(dress, suit, sportwear)을 독립변인으로 조작하고 각 스타일의 착용자를 그린 자극물을 제시하고, 착용자에 대한 호감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의복색의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의복스타일은 체계적이고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²⁵⁾. Francis와 Evans(1987)는 선명한 색보다는 낮은 채도의 의복이 의복 착용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²⁶⁾.

Yukie Kato(1995)는 패턴의 색채와 디자인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세가지 색의 본질적 요소는 능력요인과 화려함 요인에, 색채와 형태는 평가요인에, 디자인은 활동성 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²⁷⁾. 石塚純子, 加藤当枝와 檜山藤子(1987)는 디자인에 의한 착장 이미지에서 평가성에는 형태, 색상, 톤이, 기능성에는 형태가, 경량성에는 형태와 톤이, 따뜻함의 인자에는 색상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미승(1992)은 빨강옷은 화려하고 현시성이 높아 두드러지는 인상을 주고, 유채색은 무채색보다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²⁸⁾. 이명희(1998)는 재킷색에 따른 인상연구에서 지각자는 빨강 재킷 착용자를 능력있고 젊게 지각하였고, 평가요인에서도 빨강 재킷을 흰색이나 회색보다 호의적이고 여성적으로 지각하였다²⁹⁾.

이현화, 박찬부(1998)는 색상, 색상 조화, 구조 등 의복단시들이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21) M. R. DeLong,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6 (1968), pp. 784-788.

22) 이은미, "남성 의복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 18.

23) Kobayashi, "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Vol. 6, No. 2 (1981), pp. 93-106.

24) 강경자(b), *Op. cit.*

25) G. Winakor and R. Navarro,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4, No. 2, (1987), pp. 137-147.

26) S. M. Francis and P. K. Evans,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Perception Motor Skills* Vol. 64, No. 2 (1987), pp. 383-390.

27) 石塚純子, 加藤当枝, 檜山藤子, "各種デザインにおける着装イメージ," *日本家政學會誌* 38권 4호 (1987), pp. 321-332.

28) 차미승,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29) 이명희, 강승희, "상신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권 8호 (1998), pp. 1111-1121.

것으로 보고³⁰⁾하였으며, 색상 조화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며 넓은 면적의 색상이 의복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Horn과 Gurel(1981)³¹⁾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혜숙, 김재숙(1998)은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을 연구한 결과 노랑 한복 착용자는 가장 밝고 산뜻하여 자신감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빨강 한복 착용자는 멋 있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녹색 착용자는 매력 없는 이미지로, 남색 착용자는 가장 자신감이 있고 능력있는 이미지로, 회색 착용자는 어둡고 부정적인 평가 이미지를 주었다. 또한 상하 배색은 상하 동색보다 현시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상하 동색은 상하 배색보다 매력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어 상하 동색이 부드럽고 은은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준 상하 배색보다 한복의 멋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³²⁾.

강경자, 팽숙경(2005)은 톤 은 톤 배색을 중심으로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복 배색의 조화감을 연구한 결과 배색이 유사한 톤으로 구성된 경우 상·하의 색상 면적비 변화가 조화감 지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톤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는 특히 라이트/다크, 비비드/다크톤 배색은 면적비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여 면적비의 영향이 큰 배색과 적은 배색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혔다³³⁾.

이미정 외(1997)는 재킷(흰, 검)과 스카프색(흰, 검, 회)의 명도 변화에 따른 얼굴밝기의 착시실험 결과, 흰색 재킷에서는 스카프색의 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얼굴밝기가 어두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⁴⁾.

김윤경, 강경자(2003)는 의복 스타일과 톤 조합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의복색과 톤 조합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톤보다 의복색이 보다 두드러진 지배적인 단서로 작용하였다. 각 인상 차원에 미치는 지배적인 요인은 톤보다 의복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된 단서들이 조

합상태에 따라 그 인상 차원이 다르게 지각되었다³⁵⁾.

이상에서 의복 착용자는 색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었으며 한복이라는 동일한 형태라도 상하 배색방법에 따라 이미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치마, 저고리의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치마의 톤과 저고리의 톤이 서로 다르게 조합될 때 즉 톤 은 톤 배색일 경우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색상과 저고리톤, 치마톤은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본 연구의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치마저고리의 전통한복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선행 연구³⁶⁾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통제하였다.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방법으로 하였고, 배색 구성은 저고리의 깃과 고름색의 톤을 치마색의 톤과 동일하게 하고 저고리색의 톤은 다르게 하였다. 또한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여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선정된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한국 고유 의 전통 배색을 참고로 빨강치마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배색이 되는 노랑저고리, 대비배색이 되는 초록저고리로 정하고 동색배색으로 빨강저고리를 추가하여 모두 3가지 색상을 치마저고리에 사용하였으며 각 색상의 톤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가 되도록 조합한 후 한국표준색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의 색상에 준하여 색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30) 이현화, 박찬부, “지각자의 성격변인에 따른 의복단서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3호 (1998), pp. 187-202.

31) M. J. Horn and L. M. Gurel,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32) 이혜숙, 김재숙(a), *Op. cit.*

33) 강경자, 추미선, 팽숙경,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복배색의 조화감 비교 연구-톤 은 톤 배색을 중심으로-,” *대한가성학회지* 43권 5호 (2005), pp. 107-115.

34) 이미정, 김준섭, 이인자, “의복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 (1997), pp. 1287-1296.

35) 김윤경, 강경자, *Op. cit.*

36) 강경자(a), *Op. cit.*



〈그림 1〉 한복 자극물.

로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자극물 제작은 CAD system(4D-Box 6800 Zun system)을 사용하여 먼저 한복 착용자의 그림을 scanning 하여 이미지를 입력시킨 다음 선정된 색상을 치마와 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색상과 톤을 조작한 후 프린트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치마저고리의 색상 3가지와 치마톤 4가지, 저고리톤 4가지를 조합하여 만든 총 48(3×4×4)개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³⁷⁾에서 사용한 저고리색을 기준으로 3가지 색상 즉 빨강, 노랑, 초록을 각각 치마, 저고리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상, 하 동색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작된 색상을 명도에 변화를 주고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시켜 치마저고리가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한 후 이

〈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색상과 톤

색상 \ 톤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ull)	다크 (dark)
빨강 (red)	5R4/14	5R8/6	5R5/6	5R2/6
노랑 (yellow)	5Y8.5/14	5Y8.5/6	5Y7/6	5Y3/4
초록 (green)	5G5/10	5G8/4	5G6/4	5G2/4

37) 강경자(b), *Op. cit.*

38) 강혜원, 고애란, *Op. cit.*

39) 이현화, 박찬부, *Op. cit.*

40) 이혜숙, 김재숙(a), *Op. cit.*

41) 김윤경, 강경자, *Op. cit.*

들 톤을 상하가 차이가 나도록 조합한 톤 온 톤 배색의 자극물이 본 연구의 평가에 사용되었으며 이때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조작내용은 〈표 2〉와 같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독립변인인 치마저고리의 색상 3가지(빨강, 노랑, 초록), 저고리톤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치마톤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3원요인설계 및 피험자간(between subject)설계로 이루어졌다. 세 독립변인에 의해 조합된 총 48개의 자극물을 48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각 실험조합별 피험자수는 12명씩 무선배치되었다.

3) 의미 미분 척도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³⁸⁻⁴¹⁾들에서 사용된 형용사쌍과 색상과 톤을 표현

〈표 2〉 자극물의 조작 분류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	비비드 (V)	라이트 (L)	덜 (D)	다크 (K)
		비비드 (V)	RVV	RVL	RVD
빨강 (R)	라이트 (L)	RLV	RLL	RLD	RLK
	덜 (D)	RDV	RDL	RDD	RDK
	다크 (K)	RKV	RKL	RKD	RKK
노랑 (Y)	비비드 (V)	YVV	YVL	YVD	YVK
	라이트 (L)	YLV	YLL	YLD	YLK
	덜 (D)	YDV	YDL	YDD	YDK
초록 (G)	다크 (K)	YKV	YKL	YKD	YKK
	비비드 (V)	GVV	GVL	GVD	GVK
	라이트 (L)	GLV	GLL	GLD	GLK
덜 (D)	덜 (D)	GDV	GDL	GDD	GDK
	다크 (K)	GKV	GKL	GKD	GKK

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10쌍의 형용사쌍을 추가하여 총 40쌍의 형용사쌍이 수집되었다. 그러나 인상평가 어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형용사쌍을 제외하고 34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24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한복 착용자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 미분 척도는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 극단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을, 우측 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경상대학교 여대생 57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류학을 비롯한 생활과학부, 자연계열, 인문계열, 농계열, 사회과학계열, 사범계열 등 다양한 전공자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03년 5-6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에 따라 한복 착용자가 주는 인상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도출된 인상차원별 용어의 신뢰도 계수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 24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alpha=.84$ 로 용어들은 일관성있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인상요인들은 5개 차원으로 짚음·활동성,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2, .84, .70, .57, .76으로 나타났다. 3가지 단서가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과 보조분석으로 MC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한복색상, 치마톤, 저고리톤에 의한 이미지 차원의 요인 분석

한복의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에 변화를 주어 조합한 총 48개의 자극물에 대한 한복 착용자의 인상차

원을 밝히기 위해 자료를 24개의 형용사쌍으로 평균한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에서 아이겐값 1.0 이상으로 하여 5개 요인으로 묶이어서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5.3%로 5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발랄한-점잖은, 경쾌한-중후한, 활동적인-비활동적인, 밝은-어두운, 현대적인-고전적인,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귀여운-성숙한, 가벼운-무거운, 동적인-정적인, 화려한-수수한의 10개 형용사쌍으로 짚음과 활동성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구성되어 “짚음·활동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의복단서인 색상, 색상조화, 구조가 한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현화, 박찬부⁴²⁾의 짚음요인, 의복의 배색유형에 따른 지각반응을 연구한 박화순⁴³⁾의 활동성 요인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2는 전체변량에 대해 13.9%의 설명력을 가지며, 벗어난-벗없는, 세련된-촌스러운, 매력있는-매력없는, 좋아하는-싫어하는, 지적인-지적이지 않은의 5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이라 하였고 이혜숙, 김재숙⁴⁴⁾의 연구에서 매력성 차원과 유사하였다.

요인 3은 9.5%의 설명력을 가지며, 깨끗한-지저분한,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청순한-요임한의 4개 형용사쌍이 함께 묶이어서 “품위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8.4%의 설명력을 가지며, 강한-약한, 강렬한-은은한, 대담한-소심한의 3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현시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6.7%의 설명력을 가지며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의 2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회귀모형방식에 의해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짚음·활동성 요인에서는 발랄하고 경쾌하고 밝고 귀엽고 동적이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매력성 요인에서는 벗었고 매력있고 세련되고 지적인 것으로, 품위성 요인에서는 깨끗하고

42) 이현화, 박찬부, *Op. cit.*

43) 박화순, “의복의 배색유형에 따른 지각반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8권 (1992), pp. 79-90.

44) 이혜숙, 김재숙(a), *Op. cit.*

〈표 3〉 툰 온 툰 배색에 의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요인 1 젊음 · 활동성	요인 2 배력성	요인 3 품위성	요인 4 현시성	요인 5 온유성	공동성(h^2)
발랄한-김잡은	<u>.869</u>	.026	-.105	.095	-.025	.777
경쾌한-중후한	<u>.840</u>	.061	-.047	-.015	.017	.713
활동적인-비활동적인	<u>.785</u>	.076	-.087	.232	.056	.686
밝은-어두운	<u>.759</u>	.152	.166	-.153	.238	.707
현대적인-고전적인	<u>.727</u>	.252	-.090	.074	-.159	.631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u>.722</u>	.083	-.070	-.054	.144	.557
귀여운-성숙한	<u>.720</u>	-.043	-.131	-.020	.054	.541
가벼운-무거운	<u>.718</u>	-.030	.127	-.262	.032	.602
등적인-정적인	<u>.715</u>	-.030	-.089	.243	.100	.588
화려한-수수한	<u>.597</u>	.227	-.104	.306	-.052	.515
멋있는-멋없는	.141	<u>.835</u>	.160	.067	.118	.761
세련된-촌스러운	.193	<u>.817</u>	.139	.009	-.039	.726
매력있는-매력없는	.181	<u>.789</u>	.136	.021	.203	.716
좋아하는-싫어하는	.094	<u>.728</u>	.309	-.016	.123	.649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289	<u>.555</u>	.253	-.067	.042	.462
깨끗한-지저분한	.002	.281	<u>.739</u>	-.058	.087	.635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040	.288	<u>.721</u>	-.045	.026	.606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308	.151	<u>.687</u>	.044	.147	.612
청순한-요염한	-.102	.098	<u>.578</u>	-.236	.008	.410
강한-약한	-.146	.060	-.035	<u>.791</u>	-.201	.692
강렬한-은은한	.075	-.149	-.117	<u>.780</u>	-.081	.656
대담한-소심한	.305	.143	-.097	<u>.538</u>	.096	.422
따뜻한-차가운	.044	.136	.081	-.025	<u>.911</u>	.858
부드러운-딱딱한	.231	.299	.207	-.328	<u>.702</u>	.787
고유치	6.068	3.332	2.281	2.020	1.607	15.308
전체 변량의 %	25.282	13.884	9.503	8.418	6.695	63.782
공동 변량의 %	39.638	21.768	14.899	13.198	10.497	100.00

깔끔하고 단정하고 청순한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강렬하고 강하고 대담한 것으로, 온유성 요인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5개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63.8%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젊음 · 활동성과 배력성은 공동변량의 61.2%를 차지하여 색상과 툰에 의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서 이 두 요인은 중요한 차원인 것을 알 수 있다.

2.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이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의 3가지 단서가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원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들은 종속변인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력성 요인에서는 독립변인 중 색상과 저고리톤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치마톤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위성 요인에서는 치마톤을 제외한 색상, 저고리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이미지 차원에서 두드러진 단서는 매력성 요인을 제외한 4가지 인상차원에서 색상으로 나타났고, 톤의 영향은 품위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면적이 넓은 치마톤의 영향이 면적이 좁은 저고리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복의 색상이나 저고리톤과 치마톤은 한복 착용자의

<표 4> 돈 온 돈 배색이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변량원		요인		젊음·활동성 요인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		현시성 요인		온유성 요인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주효과	색상(A)	49.993	78.834**	2.012	2.284	10.307	10.925**	15.003	17.027**	23.765	29.150**			
	저고리톤(B)	9.440	14.885**	.358	.407	3.116	3.302*	2.624	2.978*	5.429	6.659**			
	치마톤(C)	15.444	24.354**	3.043	3.454*	1.732	1.836	8.087	9.178**	8.634	10.590**			
2원 상호작용	A×B	1.213	1.912	1.234	1.401	.346	.367	1.482	1.682	1.243	1.524			
	A×C	2.886	4.551**	2.136	2.424**	1.963	2.080	1.966	2.231*	2.367	2.904**			
	B×C	.906	1.429	5.184	5.883**	.763	.809	1.092	1.239	.809	.992			
3원 상호작용	A×B×C	.739	1.165	1.163	1.319	1.036	1.098	.588	.667	.838	1.028			
MCA	변인	수준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색상	Y	.46		-.12		-.04		-.17		.27		
			G	.14		.09		.27		-.18		-.43		
	R		-.58	.44	.03	.09	-.21	.20	.33	.24	.15	.30		
	저고리톤	B	.32		-.06		-.13		.07		.08			
		I	.09		.00		.23		-.17		.19			
		D	-.11		-.01		-.06		-.05		.04			
		K	-.29	.23	.07	.05	-.03	.14	.14	.12	-.30	.18		
	치마톤	V	.15		-.19		.01		.14		.23			
		L	.36		.18		-.02		-.37		.20			
		U	-.06		.03		.14		.07		-.19			
		A	-.47	.30	-.02	.13	-.13	.10	.16	.21	-.25	.22		
	Multiple R			.580		.165		.260		.346		.415		
	Multiple R ²			.336		.027		.068		.119		.173		

*p<.05, **p<.01.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은 이미지 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이미지에 미치는 이들 단서들의 영향력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품위성 요인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아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단서들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2>~<그림 6>에서 설명하고 이를 이미지 차원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젊음 · 활동성 요인

젊음 · 활동성 요인을 <표 4>에서 보면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이 주 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중 한복색상이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또한 세 독립변인 중에서 색상과 치마톤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2>와 같다. 치마톤에 따라 한복 색상간에는 젊음 · 활동성에 대한 이미지가 비교적 일관성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과 치마톤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치마톤이 다크인 때를 제외하고는 색상간에 젊음 · 활동성에 대한 이미지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톤만이 색상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고 나머지 톤인 비비드, 라이트, 널톤에서는 색상에 따라 차이를 보여 노랑이나 초록색의 한복은 발랄하고 경쾌하고 밝고 어려보이고 화려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톤별로 보면 비비드톤, 라이트톤에서 색상간에 큰 차이를 보여 노랑, 초록색의 경우 보다 젊음 · 활동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빨강색은 상반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색상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치마톤은 다크톤으로 평

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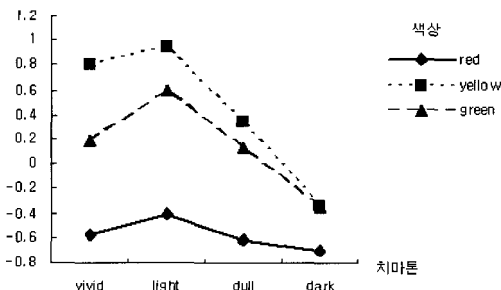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보면 치마톤과 색상은 독립된 요인으로 지각되지 않고 상호작용하여 같은 색상도 치마톤에 따라서, 또한 치마톤이 동일하더라도 색상에 따라서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매력성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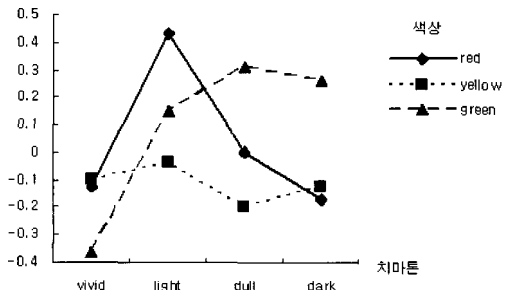
매력성 요인을 <표 4>에서 보면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 중에서 치마톤만이 주 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나타났다. MCA를 실시하여 평균값차에 근거하여 eta 값을 비교해 보면 한복색상은 초록색과 빨강색일 때 매력성 요인에 긍정적인 평가로 다소 멋있고 세련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노랑색일 때는 촌스럽고 매력 없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톤을 보면 저고리톤은 다크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멋있고 세련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나 비비드나 널톤의 저고리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촌스럽고 매력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치마톤은 라이트와 널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비비드와 다크톤의 치마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세 독립변인은 색상과 치마톤, 저고리톤과 치마톤간의 상호작용으로 매력있는 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매력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색상과 치마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3>에서 보면 치마톤에 따라 한복 색상간에는 매력있는 이미지가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치마톤과 색상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색상에



<그림 2> 젊음 · 활동성 요인에 미치는 색상과 치마톤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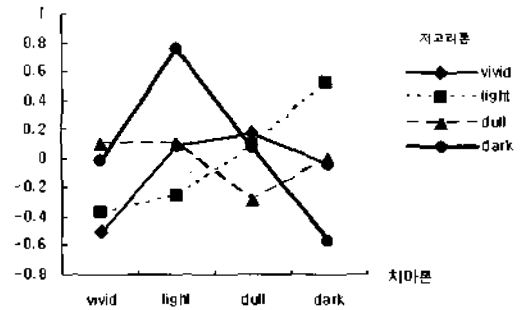


<그림 3> 매력성 요인에 미치는 색상과 치마톤의 상호작용 효과.

상관없이 치마톤이 비비드일 때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된 반면 치마톤이 라이트일 경우는 노랑을 제외한 빨강, 초록색이 매력있고 멋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초록보다 빨강일 때 더 강하게 지각되었다. 치마톤이 비비드일 경우는 색상의 영향을 크게 받지않는데 비해 치마톤이 라이트, 덜, 다크일 경우는 색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한복색이 빨강일 경우 라이트톤 치마를, 초록색일 경우 덜, 다크톤 치마를 착용하는 것이 멋있고 세련되고 매력있는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색상이 초록일 때는 치마톤이 유사한 덜, 다크톤의 경우 매우 매력있는 것으로, 빨강, 노랑은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전체적으로 빨강색은 치마톤이 라이트일 때를 제외하고는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고, 초록색은 비비드톤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력있고 멋있는 이미지를 주고, 노랑색은 치마톤에 상관없이 매력없는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노랑색은 치마톤간의 이미지 차이가 크지 않는 반면 빨강, 초록색의 경우는 치마의 톤에 따라 매력적인 이미지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빨강 한복 착용자는 가장 멋있고 매력있는 것으로, 녹색 한복 착용자는 매력없는 사람으로 지각된 이해숙, 김계숙(1998)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색상과 함께 톤을 변수로 사용하여 한복의 색상과 치마톤이 상호작용하므로서 색상의 영향은 물론 면적이 넓은 치마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색조화에서 넓은 면적의 색상이 의복의 전체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한다는 Horn과 Gurel (1981)의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매력적인 이미지에는 색상만이 아닌 톤 즉 명도 변화가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매력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저고리톤과 치마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4>에서 보면 치마톤에 따라 저고리톤간에 매력성의 이미지가 일관성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드치마톤은 저고리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 비비드, 라이트톤 저고리는 부정적으로, 덜, 다크톤은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매력있는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치마톤이 비비드일 경우는 저고리톤의 영향이 크지 않는 반면에 치마톤이 라이트일 경우는 저고리톤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다. 즉 저고리톤이



<그림 4> 매력성 요인에 미치는 저고리톤과 치마톤의 상호작용 효과.

비비드, 덜, 다크톤일 때는 긍정적으로 지각되고 그 중 저고리 톤이 다크일 때 가장 멋있고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치마톤과 동일한 라이트톤 저고리는 멋없고 촌스럽고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치마톤이 덜톤일 때 저고리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덜톤 저고리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치마톤이 다크톤 치마일 경우 라이트톤 저고리는 매우 매력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라이트치마와 다크저고리, 라이트저고리와 다크치마와 같이 치마와 저고리에 다크와 라이트를 어느 쪽에 바꾸어 배색해도 매력있는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마톤이 덜톤이면 같은 톤인 덜톤 저고리가, 치마톤이 다크톤이면 동일한 다크톤 저고리가 가장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전체적으로 비비드톤 저고리는 치마톤이 저고리톤과 동일한 비비드톤일 때 매우 매력있는 것으로, 라이트, 덜톤 저고리와는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라이트톤 저고리는 치마톤이 다크, 덜톤일 때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고 이러한 이미지는 다크톤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비드, 라이트 치마와는 매력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덜톤 저고리의 경우는 동일한 톤인 덜치마를 제외하고는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덜톤 저고리를 입을 경우 치마톤간의 이미지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다크톤 저고리의 경우 동일 톤인 다크톤 치마를 제외한 비비드, 라이트, 덜톤은 매력있는 이미지를 주고 이러한 이미지는 라이트 톤일 때 더 강하게 지각되었다. 따라서 다크저고리를 입을 경우 치마의 톤에 따라 매력적인 이미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4가지 톤 모두 치마·저고리에 동일한

돈으로 배색할 때는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원색을 사용하여 상하 동색이 부드럽고 은은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준 상하 배색보다 한복의 멋을 느끼게 하여 매력적인 이미지로 지각된다는 이해숙(1998)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는 색상을 사용한 배색 즉 색조합이고, 본 연구에서는 동일색의 톤조합으로, 단서의 차이에서 온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3가지 단서 중 색상이나 저고리톤이 매력성 이미지 차원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미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치마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동일한 돈의 저고리나 동일한 색상도 치마의 톤에 따라, 동일한 톤의 치마도 색상이나 저고리의 톤에 따라 매력성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력적인 이미지에는 색상만이 아닌 톤 변화가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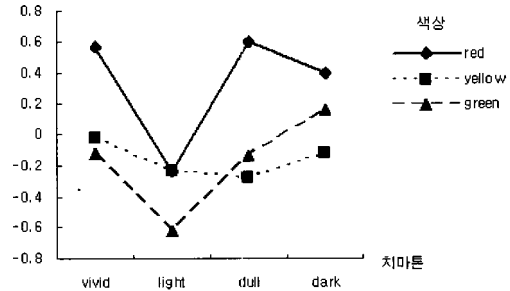
3) 품위성 요인

품위성 요인을 <표 4>에서 보면 치마톤을 제외한 색상, 저고리톤이 주 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중 한복 색상이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MCA를 실시하여 평균값차에 근거하여 ETA 값을 비교해 보면 한복색상은 초록색일 때 깨끗하고 깔끔하고 단정하며 청순한 이미지로 지각되나 빨강과 노랑색은 반대로 깔끔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으며 요염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톤을 보면 저고리톤은 라이트톤일 때만 품위성에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나 비비드, 덜, 다크톤은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깔끔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은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치마톤은 비비드와 다크톤일 때 품위성에 긍정적으로 지각된 반면 라이트와 다크톤은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들 결과를 보면 한복 배색에서는 대체로 치마·저고리의 톤 차이가 있을 때 품위가 있는 것으로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4) 현시성 요인

현시성 요인을 <표 4>에서 보면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이 주 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중 한복 색상이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또한 세 독립변인 중에서 색상은 치마톤과 상호작용하여 현시성의 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림 5> 현시성 요인에 미치는 색상과 치마톤의 상호작용 효과.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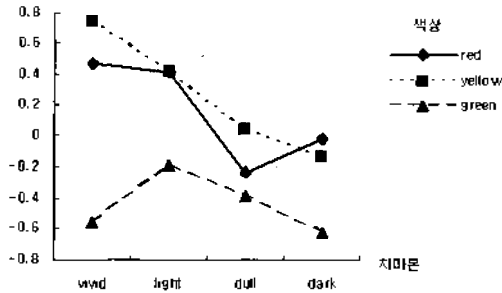
치마톤이 비비드, 덜톤일 경우 빨강색은 강렬하고 대담한 이미지를 주어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된 반면 노랑, 초록색은 현시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어 색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치마톤이 라이트인 경우는 색상에 상관없이 현시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어 색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밝은 톤일 때는 강하거나 대담한 이미지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치마톤이 덜톤일 경우는 빨강색만 매우 강렬하고 대담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치마톤이 다크톤일 경우는 노랑색을 제외한 빨강, 초록색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고 이러한 이미지는 빨강색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빨강색은 치마톤이 라이트톤일 때를 제외하고는 매우 현시성이 높은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색은 치마톤이 다크톤을 제외한 비비드, 라이트, 덜톤일 때 은은하고 소심한 이미지로 지각되고 이러한 이미지는 라이트톤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노랑색은 치마톤에 상관없이 현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빨강, 초록색의 경우 치마의 톤 변화에 따라 현시성 이미지는 차이를 보였으나 노랑색은 치마톤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빨강과 초록색 모두 치마톤이 라이트일 때 현시성이 매우 낮는데 반해 매력성은 높게 나타나 매력성 차원과는 상반된 평가를 하였으며 동일한 색상의 톤도 다양한 이미지로 지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온유성 요인

온유성 요인을 <표 4>에서 보면 색상, 저고리톤,



〈그림 6〉 온유성 요인에 미치는 색상과 치마톤의 상호작용 효과.

치마톤이 주 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중 한복 색상이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온유성의 인상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색상과 치마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6〉에서 보면, 저고리 톤에 따라 한복 색상간에는 온유성 이미지가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드, 라이트톤에서는 난색인 노랑, 빨강색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되고 이러한 이미지는 노랑색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덜, 다크톤에서는 상반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톤에 상관없이 초록색은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다크, 비비드톤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치마톤이 덜톤일 경우에는 색상의 영향이 크지 않은데 반해 비비드, 라이트톤에서는 색상에 따라 즉 한색과 난색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비비드톤에서는 색상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복의 색상과 치마저고리의 톤조합에 의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단서로 사용된 색상, 치마톤, 저고리톤에 대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4쌍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이미지 차원을 밝히고, 이들 중 어떤 단서들이 상호작용하여 착용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젊음·활동성 요인,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 현시성 요인, 온유성 요인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 요인 중에서 젊음·활동성 요인, 매력성 요인은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지만 그 영향력은 이미지 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차원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단서로 작용하였으나 매력성 차원에서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치마톤과의 상호작용으로 젊음·활동성, 매력성, 현시성, 온유성의 이미지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저고리톤은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차원의 이미지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매력성 이미지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도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치마톤과 상호작용하여 매력성 이미지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치마톤은 품위성 차원을 제외한 모든 이미지차원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저고리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고리톤이나 색상과 상호작용하여 매력성 이미지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젊음·활동적인 이미지 형성에는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이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색상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즉, 노랑, 초록색이 비비드, 라이트 톤일 때 경쾌하고 발랄하고 밝고 어리보이는 이미지를 주고 빨강색은 상반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색상에 관계없이 다크톤일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적인 이미지 형성에는 치마톤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색상이나 저고리톤과 상호작용하여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빨강색의 한복은 치마톤이 라이트톤일 때, 초록색의 한복은 덜, 다크, 라이트톤 치마와 배색될 때 매력있고, 치마와 저고리의 배색을 다크와 라이트톤으로, 또는 라이트와 다크톤으로 바꾸어 배색해도 매력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여 이들 톤 조합은 한복에서 매력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품위있는 이미지 형성에는 색상, 저고리톤이 영향을 미치고 색상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한복 배색에서 저고리색이 초록일 경우, 저고리톤이 라이트이고 치

마톤은 비비드, 덜일 때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현시적인 이미지 형성에는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이 영향을 미치고 색상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으며 치마톤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복 색상이 노랑색일 경우 치마톤에 상관없이 눈에 띄지 않지만 빨강, 초록색일 경우는 치마톤이 라이트톤일 때 현시성이 매우 낮아 매력성 차원과는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온유한 이미지 형성에는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이 영향을 미치고 색상의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치마톤과 상호작용하여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쳤다. 난색인 노랑, 빨강색은 비비드, 라이트톤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덜, 다크톤에서는 상반된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한색인 초록은 치마톤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색상과 치마톤이 저고리톤과의 상호작용으로 품위성을 제외한 젊음·활동성, 매력성, 현시성, 온유성의 4가지 차원에 영향을 미치므로서 색상과 명도가 함께 통합되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색이 의복 착용자의 신체 구성의 표면을 몇가지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고 색의 명도, 채도, 색상의 3가지 차원을 전체로 하나로 통합하거나 분리하기도 하여 의복착용자의 표면효과(surface effect)로 작용한다고 밝힌 Delong(1987)의 견해를 지지해준다. 또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색상, 저고리톤, 치마톤이 독립된 정보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지각단계에서 이들 정보들이 상호작용으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므로 한복의 색상은 저고리와 치마의 톤에 따라 차이를 보여 색상 단독으로 작용할 때에는 다르게 된다. 이는 인상형성에 미치는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의 관계속에서 그 의미가 변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주로 색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한복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색상과 톤조합을 관련시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복 및 의류업체의 색채기획에 필요한 자료 제시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평가자가 여대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점과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배색방법과 색상을 다양하게 하고

지각자 연령층을 고려하여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계속해서 밝혀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자 (2001).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1보)-돈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4호.
- 강경자 (2002).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2보)-돈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
- 강경자, 임지영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권 3호.
- 강혜원, 이주현 (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1)-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권 1호.
-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권 2호.
- 고애란 (1990).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3/4호.
- 박화순 (1992). "의복의 배색유형에 따른 지각반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8집.
-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캐킷색이 여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권 8호.
- 이은미 (1993). "남성 의복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체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자 (1974). "성격과 의복 디자인 선호간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권 2호.
- 이주현 (1990). "의복단체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화, 박찬부 (1997). "의복단체, 지각자 변인이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의복단체를 중심으로-." *복식* 32호.
- 이현화, 박찬부 (1998). "지각자의 성격변인에 따른 의복단체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3호.

-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지각(제1보)-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5호.
-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지각(제2보)-여자 한복의 상·하 색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권 8호.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壁谷久代, 加藤雪枝, 槍山藤子 (1980). “被服に對する色彩と圖形の知覺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會志* 21권 8호.
- 上野清一郎 (1980). “衣服の嗜好に關する統計的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會志* 21권 7호.
- 石塚純子, 加藤雪枝, 槍山藤子 (1987). “各種デザインにおける着裝イメージ.” *日本家政學會志* 38권 4호.
- DeLong, M. R. (1968).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6.
- Francis, S. M. and Evans, P. K. (1987).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Perception Motor Skills* Vol. 64 No. 2.
- Horn, M. J. and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Jones, E. E. and Tribaut, J. W. (1958). The Interaction Goals as Bases of Inference in Interpersonal Perception. In R. Tagiuri and L. Petrullo(Eds.), *Person Percep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Kobayashi (1981). “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Vol. 6, No. 2.
- Sears, D. O., Freedman, J. L. and Pepleau, L. A. (1985). *Social Psychology*, 5th ed. NewYork: Prantice-Hall.
- Kiser, Susan B. (1995). *복식사회심리학*. 김순심 외 3인 역. 서울: 경춘사.
- Winakor, G. and Navarro, R.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4, No. 2.